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호남의 미래 위해 투표합시다

광주·전남 1229개 투표소 오전 6시~오후 6시 ... 밤 10시까지 당락 윤곽

20대 총선 선택의 날

‘1인2표’ 후보·정당에 각 한 표

4·13 제20대 총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로 인한 제3당 출현으로, 향후 국내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와 전남에서 과거 선거처럼 ‘1당 독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1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총선 관련기사 2·3·4·5면〉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이 정치·경제·민생 위기에서 벗어나 호남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8명(광주 8명·전남 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 광주

359곳과 전남 870곳 등 모두 1229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43명, 전남에서는 51명 등 모두 94명의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 19대 총선과 같이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2표제’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1곳씩 모두 27곳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이뤄진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표가 늦는 지역이나 경합지역은 자정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다봤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초박빙 지역이 많아 일부 지역은 자정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국민의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광산을 ▲서구갑 ▲북구를 등 3곳에서, 전남은 ▲나주·화순 ▲여수갑 ▲광양·구례 ▲곡성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접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야당 텃밭에서 재선에 도전하

는 이정현(순천)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유권자의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무기력증에 빠졌던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민생 위기에서 벗어나 호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실현해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들을 선출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대신민 메시지를 내고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바로 광주정신”이라며 “광주정신은 공동체 정신이며, 그 핵심이 참여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의식과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미래, 자식의 미래,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표하자”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野 대결 ... 호남의 선택은?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야권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막바지 수도권 유세에서 각각 기호 2번과 기호 3번을 알리는 손가락 신호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밤 누가 웃을까?

국민의당 “압승” 더민주 “추격”

호남 민심 전략적 선택에 관심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후보들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의 접전 지역이 10곳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선거 운동 마감 시간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애가 타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의 선택에 따라 야권 재편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더민주에서는 광주 접전지를 중심으로 2~3곳에서 승리하고 전남과 전북에서 과반 정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호남에서 12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두 차례 호남 방문에 따른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면서도 국민의당 바람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광주 석권은 물론 전남과 전북에서 과반 이상에서 승리가 가능, 최소 20~22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바람이 여전히 확고한데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바람의 원천이 호남 민심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투표를 통해 힘을 몰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의 호남 판세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 우세를 점치면서도 더민주가 막판 따라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18~2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당 바람이 거셀 경우, 20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10석 내외를 전망하

고 있다.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 여부도 관심사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민의당에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막판 접전지를 중심으로 더민주 지지를 통해 적절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담양 메타프로방스 좌초 위기 ▶7면
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설명회 복적 ▶14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투표소 갈 때 우산 챙기세요”

광주·전남 5~30mm 비

투표장을 찾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우산을 꼭 챙겨야 할 것 같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5~30mm의 비(강수확률 60~90%)가 내리겠다”면서 “남해·서해안 일부지역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 분포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됐다. 비는 전남 남서해안에서 시작돼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뒤 13일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서해안 일부지역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 섬 지역에 사는 일부 유권자들은 기상악화로 인해 투표 참여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총유권자 156만5566명 중 섬을 낀 선거구는 여수·목포·완도·신

안·영광·진도·고흥·보성 등 8개 시·군에 7개 선거구다. 이들 지역 전체유권자 68만1459명 중 섬지역 거주 유권자는 약 5%(3만4073명) 내외에 달한다.

이처럼 기상악화에 따른 투표 차질이 예상되면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광주·전남경찰은 투표소 등에 총 3536명의 경력을 배치한다. 서해해경본부는 관내 81개 도서지역 112개 투표함이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안전하게 육지 개표소로 도착할 때까지 경비합정 14척을 동원해 호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016 내가슴愛약속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내가슴에약속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